

“황금 연휴, 노는 게 제일 좋아”… 문화예술로 충전

최장 열흘 간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맞아 광주지역 문화예술기관이 가족 체험 행사와 비대면 문화 콘텐츠를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선사한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 각자의 사정에 맞춰 다채로운 문화예술로 예년보다 긴 명절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전망이다.

△민속놀이·체험 명절 정취 ‘물썸’
국립광주박물관은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체험학습실에서 ‘2025년 추석맞이 만들기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체험 행사는 도자유품 모형 구슬을 엮어 인테리어 소품으로 완성하는 도자기 모빌 만들기, 직접 그림을 그려 제작하는 나만의 가오리엔 만들기로 구성된다. 행사는 총 1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당 48명씩 하루 총 48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일부 회차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을 초청해 이뤄진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6일과 7일 이틀 간 박물관 일원에서 ‘2025 추석 한가위 한마당’을 갖는다.

아외 소리놀이마당에서는 전통민속놀이인 투호놀이와 제기차기, 팽이 돌리기가 준비되고, 장구와 소고, 북 등으로 우리 장단을 배우는 참여형 국악기 체험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마당극 ‘춘향전’과 ‘심청전’, ‘별주부전’, ‘흥부놀부전’을 비롯해 소리파리(미니 나귀)와 슈링클스 소원 키링, 색도래 채색 체험이 마련된다. 시청각실에서는 광주지역 민속 유물 스토리, 명절 풍경 슬로우 TV 등이 상시

상영된다.

광주전통문화관은 4일 오후 3시 서석당에서 토요상설공연으로 소리꾼 김광음의 ‘춘향가’와 김다혜의 가야금 산조를 준비한다.

12일 오후 1시 ‘무등풍류 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전통추리모험 암행어사 ‘변사도를 찾아라’와 돌아온 이야기꾼 시즌3 국악동화구연이 진행된다. 필장 문상호 광주시 무형문화유산 기능보유자와 붓필 만들

‘아를을 깨물었을 때’는 ACC와 춘천인형극제, 몽골 국립인형극장이 공동 개발한 작품으로, 동명의 ACC 이야기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다. 이 작품은 몽골의 전통 우유과자인 ‘아를’을 깨문 순간 13세기 몽골로 떠나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고향에서 불모로 접혀와 몽골에서 홀로 살아가는 고려 왕자 지우와 고려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우의 몸종이 된 사르, 몽골의 실존

광주박물관·역사민속박물관 명절 행사 ‘풍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우수 공연 유튜브 상영도

가, 이예섭 남도의레음식장과 바람뽕 만들기, 송편나뉘먹기, 강강술래 등도 할 수 있을 예정이다.

국립광주과학관은 5일부터 9일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 한가위 과학한마당’을 진행. 공연과 체험, 이벤트 등 20여종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집콕’ 비대면 문화생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추석 연휴를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 ACC 유튜브 채널에서 ACC 우수 공연 모음 ‘추석은 ACC와 함께’를 상영한다.

이번에 만나볼 영상은 올해 선보인 ACC 창·제작 공연 중 어린이 인형극 ‘아를을 깨물었을 때’와 연극 ‘사사로운 사서’ 등 2개 작품이다.

인형인 쿨툰 공주가 등장해 ‘아를’을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이다.

‘아를을 깨물었을 때’는 원작 동화책에 한국과 몽골의 설화를 추가 각색해 양국의 문화를 보여주고, 몽골 국립인형극장과 함께 인형을 제작해 대사 없이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5월 ACC 초연에 이어 ‘춘천세계인형극제’에서 선보였고, 지난 8월 몽골에서 열린 ‘세계유목문화축제’에도 진출해 제작·유통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사사로운 사서’는 지난해 낭독회 형식의 시범공연 후 전문가와 관객 평가를 거쳐 올해 본 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작품이다. ‘도서관’과 ‘책’이라는 사물의 쓰임과 가치를 통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탐구하는 드라마 연극으로 공공도서관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도서관 장서들이 침수 사태를 겪으며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



ACC 연극 ‘사사로운 사서’



국립광주박물관 ‘도자유품 모형 구슬’

국립광주박물관 ‘연 만들기’

ACC 인형극 ‘아를을 깨물었을 때’

는 과정의 ‘회복’과 익숙한 공간에서 낯선 상황을 맞은 인물이 개인의 오랜 부채를 마주하는 과정의 ‘회복’을 그린다.

특히 학교 도서관을 무대에 그대로 구현해 관객의 몰입도를 높이고, 도서관 내 침

수된 책이 복원되는 것처럼 서로 다른 개인의 가치관이 각자의 자리에서 환대받고 공존하는 모습으로 공감을 이끌어낸다. 올해 대중상 수상 및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폭작 속았수다’에 출연한 이지현 배우

와 ‘연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의 손지윤 배우가 각각 도서관 자료실의 실장과 수서팀 팀장으로 분해 연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스릴러부터 애니까지…극장서 한가위 보내볼까

박찬욱 감독 ‘어쩔수가없다’
개봉 5일만에 100만 돌파
명절 맞춤 코믹 ‘보스’ 등

극장가에 명절 특수를 노린 작품이 개봉하고 있다. 블랙코미디를 선사하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와 코믹 액션 ‘보스’,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체인소맨: 레제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스크린을 채운다.

먼저 지난 24일 개봉한 ‘어쩔수가없다’는 첫 날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며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어쩔수가없다’는 ‘올드보이’로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 제작하고 이병헌, 손예진, 이성민 등 유명 배우들이 다수 출연한다. 25년 경력의 제2 전문가이자 한 가정의 가장 ‘만수’가 되고 싶게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이야기로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엑스’(THE AX)를 원

